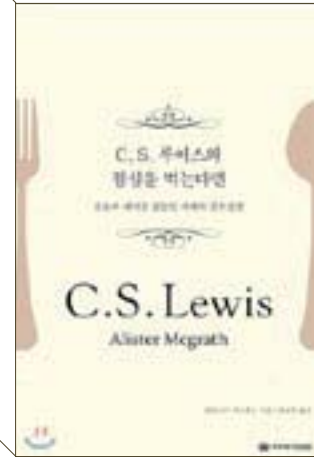


서평 『C.S. 루이스와 점심을 먹는다면』

좋은 선생님이 계신데, 만나 볼래요?

알리스터 맥그래스 저 | 최요한 역
| 국제제자훈련원(DMI)



설레는 제목이다. C.S. 루이스와 점심을 먹다니. C.S.루이스와 점심을 먹는다면 뭘 먹을까? 같이 식사를 하면 어떨까? 밥이 잘 넘어가긴 할까? 여쭙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내가 식사를 엄청 방해하겠지? 아 참, 난 영어를 잘 못하지. 꼭 영어 때문이 아니라도 솔직히 설레면서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다. 강의를 듣는다면 또 모를까.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기는 좀 그렇다. 너무 대가라서 그런가. 하여튼 ‘거시기’ 하다. 그런데 참 다행이다. 독대는 아니다. C.S. 루이스를 잘 아시는 분이 내 심정을 이해하시고 먼저 셋이 함께 보자고 하신다. 단 둘이 만나는 건 친해지고 나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다. 그분은 무척 친절하셔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이런 친절한 초대장을 보낸 사람은 바로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자신이 40년 동안 루이스를 읽었으며, 읽을 때마다 그의 다층적인 지혜의 진가를 새롭게 이해했을 뿐 아니라 그의 사상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늘 힘썼다고 밝힌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노력했음지라도 ‘결국 독자가 직접 루이스를 읽어야 한다.’(15쪽)고 말한다. 그래서 저자는 유혹하는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낸다. ‘루이스는 이런 사람이에요. 루이스는 이렇게 생각해요.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어때요? 만나 보고 싶지요? 두 분 친해지면 좋겠어요. 내가 소개할게요. 언제 같이 식사해요.’라고 말이다.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는 독자들이 루이스와 마주 앉아 식사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 같다. 저자의 초대장이 참으로 정성스럽다. 총 8번의 만남을 제안하는데, 매번 루이스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가 중요하게 여긴 문제들과 그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과 행동을 풀어



김민정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 수료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이자 지역아카데미 교육농장센터 위촉연구원이다.

준다. 루이스의 삶이나 조언에 대한 저자의 생각도 살짝 살짝 엿볼 수 있다. 여덟 번을 만나며 나누는 대화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만남. 대형 파노라마 사진. C.S. 루이스, 인생의 의미를 말한다.

두 번째 만남. “오래 사귀 친구가 믿을 수 있고.” C.S. 루이스, 우정을 말한다.

세 번째 만남. 이야기로 지은 세계. C.S. 루이스, 나니아와 이야기의 중요성을 말한다.

네 번째 만남. 구주와 사자. C.S. 루이스, 아슬란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한다.

다섯 번째 만남. 기독교 신앙. C.S. 루이스, 변증을 말한다.

여섯 번째 만남. 배움에 대한 사랑. C.S. 루이스, 교육을 말한다.

일곱 번째 만남. 고통과 싸우다. C.S. 루이스, 고통의 문제를 말한다.

여덟 번째 만남. “더 높이, 더 깊숙이” C.S. 루이스, 소망과 천국을 말한다.

각 장의 제목만으로도 나누게 될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다. C.S. 루이스의 유명세에 실린 조각 정보만으로도 내용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서 재미있다. 예를 들면, ‘다섯 번째 만남. 기독교 신앙. C.S. 루이스, 변증을 말한다.’ 부분이 그렇다. 『순전한 기독교』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거니와 C.S. 루이스가 뛰어난 변증론자로 알려진 만큼 루이스와 변증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교에 대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변증 ‘내용’이 주가 될 것만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점점 냉담해지는 문화 환경에서 루이스가 어떤 방법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고 변호했는지’(130쪽)를 설명하는 데에 상당 부분을 할애한다. 변증의 내용을 보며 ‘우와, 이렇게 설명되는구나!’가 아니라 ‘기독교에 유리한 지적이고 창의적인 풍토를 만들고 유

지’(144쪽)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변증을 택한 루이스의 생각을 이해하게 된다. 루이스는 변증으로 기독교의 합리성을 공개적으로 증명하고 인간의 경험을 지성으로 성찰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어도 강하게 제시할 수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반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이다. 이 만남에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루이스의 변증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리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저자는 루이스의 변증 내용을 설명하는데 소홀하진 않지만, 그보다 변증에 대한 루이스의 생각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신앙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갖도록 은근히 설득하는 데 무게를 둔다. 그러니 이 책을 읽으면 『순전한 기독교』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지 내 눈으로 꼭 봐야 할 것만 같다. 이 점이 이 책의 또 다른 기쁨이다.

저자가 준비한 만남을 이어가면 점점 더 C.S. 루이스의 책들을 읽고 싶어진다. 만남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주제에 충실하게 전개되지만, 주제에 따라 그 주제를 다룬 저작들을 기반으로 진행되니 자연스럽게 루이스의 책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런데 그저 관심으로 끝나지 않는다. 루이스에 대해 알수록, 저자가 소개하는 내용의 일부를 이해할수록 직접 루이스를 읽고 싶은 생각이 커진다. 왜냐하면 저자가 ‘루이스의 말은 확실히 옳다.’(221쪽)고 할 때도 있지만,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펼친 변증은 지금도 효력이 있을까?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음은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140쪽)고 말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루이스가 주장하는 바는 (...) 내가 한번 설명해 보겠다.’(141쪽)라고 루이스의 생각에 자기의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고, ‘루이스가 (...)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132쪽)며 자신은 그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에 불과함을 밝히기도 한다. 그러니 진짜 루이스가 궁금하면 직접 만나야만 (읽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꼭 읽고 싶어지는 책 중 단연 최고는 『순전한 기독교』일 것이다. 인생의 의미를 다루는 첫 번째 만남, 기독교 신앙의 변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다섯 번째 만남, 루이스의 천국을 보여 주며 소망을 말하는 여덟 번째 만남은 『순전한 기독교』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도 이에 못지 않다. 세 번째 만남과 네 번째 만남은 직접적으로 『사자와 마녀와 옷장』을 비롯한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를 다루는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에 강하게 권한다. 이야기에 대한 설명만 읽고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덮기에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라는 초청’이 너무 매력적이다. 같은 방식으로 루이스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주는 두 번째 만남은 『네 가지 사랑』을, 교육에 대한 루이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여섯 번째 만남은 『인간 폐지』를, 루이스가 삶에서 겪은 고통의 문제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일곱 번째 만남은 『고통의 문제』와 『헤아려 본 슬픔』을 직접 만나 보고 싶게끔 이끈다.

루이스의 책을 직접 읽고 싶어지는 두근거림이 루이스의 멋진 지성이나 유려한 필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책의 아름다움이다. 저자가 독자들에게 루이스의 책들을 소개하는 방식은 독특하다. 루이스의 책들이 얼마나 뛰어난 작품들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루이스의 삶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한다. 무신론자였던 루이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신이 있음을 믿게 되었는지,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루이스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도 알려 준다. 루이스가 삶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도 열심히 이야기한다. 독자와 루이스가 진짜 ‘점심 식사’에서 만나게 될 것처럼, 아끼는 후배에게 좋은 선배님을 소개하듯이 그 사람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알려 준다. 그래서 독자들은 삶과 분리된 루이스의 저작이 아니라 삶을 살아낸 일상인으로서의 루이스를 만나게 된다. 루이스의 업

적은 그의 삶과 분리되지 않고, 독자는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에 대한 루이스의 생각, 즉 ‘루이스가 강조하는 것은 이야기다. 해석은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부차적인 것이 (112쪽)’라는 사실을 이 책은 그대로 보여 준다. 루이스의 책들을 읽고 해석하는 것에 앞서 루이스와 독자가 만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루이스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꼭 소개하고 싶어서 초대장을 쓰고 있으니, 와서 만나 보라는 뜻일 것이다. 이러니 ‘루이스와 톨킨의 우정에 금이 간 것은 톨킨의 잘못이 컸다.’(60쪽)고 하거나 ‘루이스는 작품의 여러 대목에서 기독교를 지적인 변화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217쪽)라고 하고서는 오해할 만한 대목들을 조목조목 풀어 주는 부분이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곧 루이스를 만나 식탁에 둘러앉아 여러 주제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만 같다.

책을 읽으면서 각 만남을 마무리할 때마다 C.S. 루이스와 점심을 먹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급기야는 루이스와 따로 만나도 좋을 것만 같았다. 간혹 만남이 급하게 마무리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고, 다음 만남과 매끄럽지 연결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 정도는 만남이 주는 유익에 비해 너무 사소한 아쉬움이었다. 이 여덟 번의 만남으로 C.S. 루이스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니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수백 명이 있는 강의실에 앉아 강의를 듣던 느낌으로 만났던 C.S. 루이스의 책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알콩달콩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으로 읽고 싶어진다. 그만큼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의 초대는 정중하고 친절하다. 이제 초대에 응해야겠다. 루이스를 만나러 가야겠다. 